

분당 오리뜰 두레농악과 판교(널다리) 쌍용거줄다리기



분당 오리뜰 두레 농악

성남지역은 오랜 세월동안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권역에 속하면서 현대적 도시로 변모하기까지는 농경문화를 전승하여 왔다. 그리하여 민속놀이는 농경문화를 배경으로 한 것들이 전승되어 왔고, 풍년을 기원하는 풍습이나 삶의 안정을 기원하는 민속문화가 발전되어 왔다. 성남지역의 여러 가지 민속놀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와 판교 지역에 전승되어 온 '판교 쌍용거줄다리기', 그리고 근래에 발굴되어 복원된 '분당 오리뜰 두레농악' 이 그것이다.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는 분당구 이매동에 전해오는 민속으로 이매동을 예전에는 이무술이라 하였고, 이 마을에서 새 집을 지을 때 지경들로 집터를 고르고 지반을 단단하게 다지며 부르는 노래가 복원되어 전해온다. 집터 다지는 소리는 노동요로서 집터를 다질 때 뿐 아니라 다양한 토목공사에서 터를 다질 때 불려졌다. 「지경달는 소리」, 「지점이 소리」, 「상량가」라고도 하는데, 유경험자 윤명용씨가 중요무형문화재 19호 선소리 산타령의 보유자인 황용주씨의 고증을 통해 복원하였고, 경기도의원 방영기씨가 전승하고 있다. 집터다지기는 주로 밤에 이루어진다. 마을 사람들이 낮에는 농사일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터주신이나 귀신은 밤에 활동하므로 밤에 행하여야 액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집터 다지기의 절차는 먼저 집주인이 술상을 준비하여 동티가 나지 말게 해달라고 빌며 술을 사방에 뿌린다. 이어서 마을 주민들이 술을 한 잔씩 돌리고 햇불을 밝힌 가운데 터를 다지는데, 보통 선소리꾼이 선창을 하면 지경꾼들은 후렴을 한다. 선소리를 매기는 동안 지경꾼들이 지경들을 높이 들었다가 후렴으로 받으면서 지경들을 힘차게 내려치는 형식이다. 노래의 내용은 집을 지은 후에 발복하기를 기원하는 것과 집을 짓는 동안의 무사함을 기원하는 고사와 덕담이 주를 이룬다.

1982년에 발굴하여 1983년 3월 27일에 고증을 통한 시연회를 거쳐, 1997년 경기도 민속 경연대회에서 장려상 수상, 1994년 경기도 민속경연대회 우수상 수상, 2000년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축제에서 노력상을 수상하였다.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 (제2 지경맞이소리) 중

모습이 : 좌우편 지경님네(군방님네)-

역꾼 : 예아~

오늘 이 터전을 잘 다져주면 떡 썰이
세가마, 서말, 석대, 세흙, 세짜이니
옛날 예적 옛노인이 하시는 소리
우려우려 해봅시다-

역꾼 : 예아~

천근돌이 지경들(에여라 지경이요)
머리위로 번쩍번쩍 (에여라 지경이요)
아주광광 잘다져주오 (에여라 지경이요)
일심동력 힘모아 (에여라 지경이요)
이모저모 팔모로다 (에여라 지경이요)
아주광광 잘다져주오 (에여라 지경이요)
천하명당 좋은터에 (에여라 지경이요)
구중궁궐 자율적에 (에여라 지경이요)
어떤 재목이 들었느냐 (에여라 지경이요)
이하생략.



판교(널다리) 쌍용거줄다리기

쌍용거줄다리기는 정월 대보름날 너더리(판교동)에서 행해졌다. 김광영씨의 증언에 의하면, 판교동에는 1970년대 초반 경부고속도로가 나기 전에 길을 가로지르는 신작로를 따라 길게 시장이 형성되고, 이곳에서 정월 대보름에 줄다리기가 행해졌다고 한다.

대보름이 되기 여러 날 전부터 마을의 남자들이 당산나무 아래 모여 줄을 꼬아 굵게 수십 미터가 넘도록 만든다. 줄을 꼬는 데에는 마을 주민 3~4명이 약 1주일간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시간을 맞추어 줄을 꼬았다. 줄은 마을의 회화나무가 있던 너른

광장에서 꼬았는데, 경부고속도로 건설로 너른 논이 없어져 마을 뒤 셋길에서 줄을 꼬아 그 자리에 줄다리기를 하는 날까지 보관했었다. 줄을 꼬는 데 필요한 새끼는 작은 줄 18가닥을 엮어 합한 중줄을 다시 엮어 대줄을 만드는데, 남근형으로 생긴 것을 '청룡줄'이라 하고, 여근형으로 생긴 줄은 '황룡줄'이라 부른다. 줄다리기는 지방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만장과 풍물패를 앞세우고 주민들이 함께 흥을 돋우며 행해졌다. 줄다리가 끝난 후에는 청룡줄을 황룡줄에 끼우고 잘 깎아온 비너목을 쪼는다.

대보름날 저녁, 주민들은 당산나무 앞에서 한해의 풍작을 기원하는 마을제사를 지낸 후 시장터에서 줄다리를 했다. 이에 앞서 마을 안 길에 쌍룡의 용두를 맞대어 놓고 제사를 지내면서 축문을 읽는다. 청룡줄에는 기혼 남성이, 황룡줄에는 여성과 미혼 남성이 한 편이 되어 각각 세 번씩을 당긴다. 여성 황룡 줄이 두 번을 이겨야 풍년이 든다는 속신 때문에 대체로 황룡 줄이 이기도록 힘을 쓰는 편이다.



줄다리가 끝나면 사람들은 음식을 나누어 먹고, 풍물패가 팽과리, 장구, 북, 나팔 등을 울리면서 한마당 놀이를 한다. 이날 음식은 마을의 전 주민이 합심하여 공동으로 준비한다. 그런 후에 쌍룡줄과 황룡줄을 강이나 냇물에 태워서 액운을 물리치는 의식을 끝으로 줄다리는 마무리가 된다. 판교의 쌍용

거줄다리기와 유사한 줄다리기 민속이 여주의 혼암리에서도 전승되고 있는데, 이것은 경기도 지역의 쌀농사 문화가 지닌 공통적 특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제, 판교신도시 개발과 더불어 이 줄다리기 민속도 없어질 위기에 처했는데 성남문화원에서 보존 전승을 위해 보존회 조직과 더불어 내년 정월 보름날 민속행사로 치러질 준비가 되고 있다.



판교(널다리) 쌍용거줄다리기

분당 오리뜰 두레 농악은 현재 분당구 구미동 지역에서 행해졌던 민속놀이이다. 오리뜰은 과거 경기도 광주군 낙생면 구미리에 위치한 넓은 평야였으나, 1973년 7월 성남시로 되면서 구미동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1989년 분당신도시 개발로 대단위 아파트단지로 탈바꿈했다. 아파트 숲으로 변모하기 전에는 이 지역에서는 농번기와 농한기를 가리지 않고 풍물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분당의 개발 이후 오리뜰에서 전승되어 오던 두레농요가 소멸될 위기에 처했는데, 한국농악보존회 성남지회장 강승호(39)씨와 성남문화원의 노력으로 문화관광부의 전통문화 재현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복원되어 2007년 11월 3일 오리뜰의 중심이었던 분당구 구미동 오리공원에서 첫 시연을 가졌다.

두레는 일종의 협동노동 조직체로서 일감에 따라 김매기두레, 풀베기 두레, 모심기 두레, 길쌈두레 등이 있는데 흔히 김매기 두레에 농악이 딸린다. 김매기 두레 농악은 본디 농부들이 풍농을 기원하는 곳에서 굿패들의 행악(行進音樂)이나 김매러 들고 날 때 두레패들의 행악으로 치던 농악이라고 볼 수 있다.

풍농을 기원하고 공동체 의식과 일체감을 조성하는 오리뜰 두레농요는 모심는 소리, 논매는 소리, 논 흙치는 소리 등으로 구성되며 팽과리, 장구, 북, 징, 제금 등의 반주가 어우러진다. 평상시에는 “육띠기(쇠, 징, 제금, 북, 장구, 호적으로 연주하는 형태)”나 삼괘이(제금, 장구, 호적으로 주로 굿거리를 연주하는 형태)라는 것으로 연주를 하고, “건달춤”이라고 하는 잡색 놀음을 통해 연희되었다. 명절이나 마을의 큰 경조사, 각종 대회 때에는 20명 안팎의 치매들을 구성하여 지신밟기를 하였고, 용인이나 판교 등의 인근 마을과 함께 답교놀이를 하였다.

오리뜰 두레농악의 특징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농사풍이를 통한 놀이형태 즉



암줄과 수줄을 연결한 모습



분당 오리뜰 두레 농악(1960년)

가래질놀이, 씨레질 놀이, 볍씨 부리기 놀이, 모찌기 놀이, 모심기 놀이, 논매기 놀이, 벼베기 놀이, 벼털기 놀이, 벼말리기 놀이, 벼담기 놀이, 벼메기 놀이 등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또한 진풀이에 있어서도 대(大)자 진, 십(十)자 진 등 특이한 진풀이가 등장하는 것이 특징으로 농악대가 여러 가지 진(陣)을 짜며 노는 형태는 이 지역의 군사적 특징이 가미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상모 병거지 윗면에 금속 장식을 하였으며 흰 두건과 빨간 꽃천을 하였다.

한국농악보존회 성남지회와 성남문화원이 오리뜰 농악의 복원과 전승을 위해 함께 특화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1997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전통문화 복원 및 재현사업'으로 선정된 뒤 장양천(77)씨 등 오리뜰 원주민 농악대원의 고증을 거쳐 재현에 성공하였다. 오리뜰 원주민들은 김현득(78세), 장양천(77세), 김근배(76세), 이종훈(76세)씨 등이 당시의 농악놀이의 연희자들인데, 이들이 분당 신도시 개발 이후에도 정기적인 친목 모임을 가지고 있던 것이 계기가 되어 한국농악보존회와 성남문화원에서 이분들의 고증을 받아 '성남 오리뜰 두레농요'라는 이름으로 발굴 및 복원을 하게 되었다.

당시 쇠는 고인이 되신 김현수, 이상균, 김현억 등을 비롯하여 장양천, 유선웅 등이 있고, 장구는 고 장경천, 고 김현직, 김근배 등이 있으며, 북은 고 김금인, 나동선 등이 있고, 채상소고는 장양천, 김현득, 김종목, 김근배, 이종훈, 고 유형목 등이 놀았고, 잡색으로 포수에는 고 김수석, 호적은 고 안종식, 임연봉, 농요나 고사반, 열두발 상모에는 김현득 등이 연희하였다.

도시화의 미명아래 반농반예인(半農半藝人)의 원주민들 가운데 이제는 고인이 되었거나 뿔뿔이 흩어져 버린 상황에서 김현득, 장양천, 김근배, 이종훈 등 당시 연희자들의 증언은 소중한 자료가 되어 우리의 민속을 재현하는 데 기여하게 되었던 것이다. 분당 오리뜰 두레농악은 복원 재현 첫해인 1997년, 제16회 경기도민속예술축제에서 공로상(3위 입상)에 이어 2008년 제7회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축제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